

동식물

다양성과 지역성



일본 두루미, 구시로 늪지대 (홋카이도 참조)
일본의 보호종인 이 희귀한 두루미는 시베리아와 홋카이도에서만 번식한다.

일본의 식물

일본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일본에는 약 5,560종 (4,720종의 속씨식물, 40종의 겉씨식물, 800종의 양치식물)의 토착식물이 있고, 일본의 모든 속씨식물과 겉씨식물 중 약 35%를 차지하는 1,950종은 일본 고유종이다. 이는 일본이 다른 국가보다 고유종의 비중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 약 1,600종의 속씨식물과 겉씨식물은 일본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남북으로 3,000 km(1,864마일)에 걸쳐 뻗어있는 일본 군도의 다양한 기후로 인해 많은 식물들이 번식하게 되었다. 가장

주목할만한 기후상의 특징은 온도 분포가 다양하고 강수량이 많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많은 식물이 서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후로 인해 일본의 약 70%가 숲으로 덮여 계절마다 잎의 색깔이 바뀐다.

식물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기후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모두 동아시아 기후대에 속해있다. 그 지역으로는 (1) 류큐와 오가사와라를 포함하는 아열대 기후, (2) 남부 혼슈, 시코쿠 및 규슈에 서식하며 '시이', '가시'와 같은 활엽상록수 숲이 분포한 온대 기후, (3) 중북부 혼슈, 남부 홋카이도에

삼나무 (가고시마현)

야쿠시마 섬에 있는 조몬 삼나무로 알려진 이 나무는 둘레가 16.4m이며 나이가 7,200 년으로 추정된다. (사진제공 : AFLO)

서식하는 활엽 낙엽수 숲이 분포한 냉대 기후, (4) 홋카이도 중부와 북부를 포함하며 사크할란 전나무와 옛소 가문비나무가 서식하는 아고산대 기후, (5) 중부 혼슈와 중부 홋카이도의 고산지대로 고산대 식물인 ‘고마쿠사’ (‘Dicentra peregrine’) 가 서식하는 고산대 기후가 있다.

일본의 전형적인 식물

일본 소나무와 삼나무인 마츠와 스기는 따뜻한 남부지방을 비롯하여 일본 열도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일본인들에게 아주 친숙하다.

소나무는 종종 화려한 장관을 이룬다. 가장 잘 알려진 경치는 교토부의 아마노하시다테로 5,000그루 이상의 소나무가 모래톱에 열을 이루어 분포하고 있다. 최대 약 20미터까지 자라는 거대한 소나무들은 해안지역의 바람막이로 사용되기도 하고, 작은 소나무들은 분재나 정원수 및 집이나 가구를 만드는 목재로 사용된다.

또한, 소나무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진다. 고대의 사람들은 자연에 경외심을 나타냈으며 식물이나 나무를 신령의 상징으로 생각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소나무, 삼나무 및 편백나무와 같은 상록수를 숭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에게 거처를 제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년에 집의 입구를 “문 소나무”를 의미하는 ‘가도마츠’로 장식하는 것을 지금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을 환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과 친숙한 식물

일본을 가장 잘 대표하는 식물은 ‘사쿠라’ (벚나무) 이다. 일본의 토착식물인 사쿠라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일본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이다. 현대의 일본인들은 봄에 벚나



무가 필 때 ‘하나미’ (꽃구경) 를 즐기며, 이 시기에 학교와 회사에서는 입학식과 같은 많은 행사가 열린다. 텔레비전과 신문의 일기에 보에는 “벚꽃 전선” 도표를 방송하거나 인쇄해서 오키나와 북부에서 시작하여 홋카이도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단풍이 지는 가을에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 수백 년 전의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서 풍류가무를 즐겼다고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일본인은 단풍이 들면 자동차와 열차를 타고 단풍구경을 가는 행렬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환경에 대한 관심

오늘날 산업화된 일본에서 식물은 과거만큼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대규모로 자연환경을 개발하고 부주의하게 나무들을 벌목하여 오염이 심각해 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일본의 동물

일본에는 주변 나라들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동물과 토착 생물이 있다.

인해 다양각색의 식물군이 분포하고 있듯이 일본의 섬들에는 여러 기후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다. 동남아시아의 열대동물에서부터 온화한 기후의 한국과 중국의 동물 그리고 시베리아 아북극 지방의 동물들이 살고 있다.

밝은 색의 열대 관상어, 거북이 및 바다뱀이 류큐 섬의 열대바다에서 번식하고 있으며, 이곳은 또한 검은 쇠돌고래의 집이기도 하다. 혼슈 중부지방의 북쪽 바다에서 우리는 강치, 물개 및 부리고래를 발견할 수 있다. 바다코끼리와 같은 북극지역의 동물들도 종종 오후츠크해에 맞닿아 있는 홋카이도의 북동쪽 지방을 방문하기도 한다.

일본의 남쪽 끝인 류큐섬에는 대부분 관수리, 큰박쥐 및 다양한 도마뱀들과 같은 열대동물들이 서식한다.

혼슈, 시코쿠 및 규슈와 같은 주요 섬들에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 및 북부지방의 낙엽수 숲에서 온 '다누키' (너구리), '시카' 사슴 및 원앙이 살고 있고, 시베리아의 침엽수림에서 온 불곰, 들꿩 및 도마뱀도 서식한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섬들은 아시아 대륙과 결합과 분리를 반복하여 동물의 이동이 상당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동물의 분포가 연속적이지는 않다. 일본의 특정한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은 대응하는 대륙지역의 동물들과 항상 같지는 않으며, 많은 동물들이 대부분 일본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일본의 본토에서만 서식하는 종들 중에는 일본 다람쥐와 일본 원숭이, 이치마 구릿빛 꿩, 일본 거인 도롱뇽 및 원시잠자리가 있다. 또한 학자들이 훨씬 일찍 본토로부터 분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류큐 섬에는 프라이어 딱따구리와 아마미 가시생쥐가 살고 있다. 혼슈의 북쪽 끝에 있는 시모키타 반도는 시미안 원숭이의 최북단 서식지이다.

깊은 바다에는 투구게, 앵무조개 및 상어가 서식하고 있고, 그 밖의 다른 수중동물에는 왕거미게 (세계에서 가장 큰 갑각류) 와 민물 일본 왕도롱뇽 (지구상에서 가장 큰 양서류로 거의 50년을 삶) 이 있다.

많은 종류의 아시아 육상 도롱뇽과 매미 및 잠자리가 여러 섬에서 발견되었고, 호랑나비는 본토에서만 8종류가 발견되었다.

2011년 11월 현재, 일본에는 60,000종 이상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많은 동물은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따오기 (Nipponia nippon) 는 1997년에 멸종되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중에는 이리오모테 살 쾡이 (Mayailurus iriomotensis), 멸종종으로는 일본 수달 (Lutra nippon), 황새(Ciconia ciconia boyciana)가 있다.

동물과 일본의 문화

동물의 형상은 일본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의 고전문학은 다양한 동물들과 관련하여 일본사람들의 여러 믿음의 근원이다. 선사시대와 고대에 일본의 엘리트들은 중국으로부터 전통적인 학과 거북 (행복과 장수) 및 제비 (충실한 귀향) 와 같은 동물의 상징을 받아들였다.

일본의 민속 신앙에서 어떤 동물들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종종 마을 근처에서 발견되는 '다누키' (너구리) 는 전통적으로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영험한 생물로 간주되었다. 옛날 이야기에서 너구리는 종종

벚꽃놀이

3월과 4월 벚꽃이 만개하면 벚꽃 나무아래로 소풍을 간다. 아름다운 벚꽃으로 유명한 장소 중에는 우에노 공원 (도쿄) 와 오사카 성공원 (오사카) 가 있다.



해롭지는 않지만 깜짝 놀랄만한 재주로 사람들을 흘린다. 이러한 내용은 작은 입상들의 풍만한 배와 커다란 고환이 달린 모습으로, 사케(술) 병을 가지고 다니는 귀여운 동물로 묘사되어 있다.

여우도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동물이자 농업의 여신인 이나리 묘진의 전령으로 생각했다. 여우는 영리하고 꾀가 많다고 알려졌는데, 옛날 사람들은 여우가 밤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문을 걸거나, 사람들을 흘리게 하여 미치게 한다고 믿기도 하였다. 이나리에 대한 믿음은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며 전국의 이나리 신사에서는 여우를 숭배하고 있다.

불교의 가르침은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까지 네 발 짐승을 죽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대신 물고기를 먹으면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했다. 그리고 한 동물 (쥐, 소, 호랑이, 토끼, 웅,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 12년의 한 해를 상징하는 고대 중국의 달력체계인 60갑자 체계를 사용하였다. 2018년은 무술년(戊戌年) 개의 해이며 내년 2019년은 기해년(己亥年) 돼지의 해이다. 오늘날 일본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해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하며 “난 말띠야.” 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의 성격과 운명은 태어난 해에 해당하는 동물의 영향을 받는다고 믿는다.